

미래포럼 2006 동년포럼
06-12-20 6:00PM 3시간

No. 1

안녕 하십니까? 2006년도 한해도 이제 몇일 남지 않았지만,
여러가지로 바쁘실런데에 다름없이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동년포럼이 오늘이 모임이 특별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미래기업의 기준>을 검토하고
<미래기업 선포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래기업 현장이 채택되어
참여기업의 선포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미래기업현장의
이행과 실현하는 참여기업들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2기 기업들이 미래기업으로의 수준을 높여 갈수록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위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미래포럼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포럼이 설립 이래로 선행하였던
 각종지원사업의 기업으로의 문제는
 여타기업부흥을 비롯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와
 위촉한, 다양한 단체 해산의 주축을 하는 데에 기여 하였다고

미래포럼 산하에 있는 각종위원회
 대부분이 있는 시민사회를 위한
 보건의 교육의 위한 등등의 지역사회공헌회 만들기를
 여러부에서 지원하여 큰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사업 실행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학습을 계속하여도 된다고 믿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금까지 회로들에게서 제공받아왔던 것보다
영향력있는 훈련과정의 결과로 믿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점을 대조해서
사회주의 미래도림을 이끄러 오신
회로들과 운영위원들에게 특히 남다른 관심과
응답을, 방주로 두 활동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앞둔 늦은 밤에
 사랑,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